시론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서둘러야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2008년 미국에서 촉발한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발(發)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 지도자들이 서둘러 공조 체제를 구축해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유럽 경제를 정상 상태로 돌려 놓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 제조업이 취약한 상태에서 금융산업만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이상 비대 현상을 보여왔고, 결국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을 계기로 금융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는 그 성격상 원상 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제조업과 금융산업이 균형을 이뤄야 안정적 발전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구미 국가의 제조업이 다시 튼튼한 경쟁 기반을 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따라서 금융산업 재건도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경제의 회복이 늦어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들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시급히 새로운 대응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고 해도 상당 기간에 걸쳐 이들 시장에 대한 의존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해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그 축소분을 어딘가에서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해결책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에 있다고 하겠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과정에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음은 한·일 FTA나 한·중 FTA의 진행이 더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현실적인 접근 방법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면서 그와 병행해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66
> 미·유럽 침체 … 대체시장 찾을때
> 역내 SOC 공동건설이 현실적
> 한·일 협력 통해 시너지 노려야
> 99

먼저 동아시아 국가 및 국가군(아세안)과의 교역 확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는 일이다.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 함께 교역 확대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SOC를 철저히 조사해 해당국 정부와 협의 추진해야 한다.

역내 국가들과 통화를 교환(통화 스와프)하는 것 역시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또 하나의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지금은 미국 달러나 유로화 가치가 심한 변동을 보이고 있어 기축통화로서의 위치가 불안정한 상태다. 역내 개별 국가들과의 통화 교환은 금융시장 안정 공조라는 측면과 더불어 교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한국과 역내 국가들의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해 나간다면 미국과 EU 시장에서 줄어드는 상당 부분을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를 통해 대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과 관련해서는 특히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 내에서 시장기구가 튼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에 힘을 합할 필요가 있다.

역내 국가들과의 사회간접자본 건설도 같은 입장에 있는 일본과 협력해 추진한다면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일본과 이미 자원 개발 및 플랜트의 제3국 공동 진출을 적지 않게 추진하고 있는데, 역내 사회간접자본 건설에도 한·일 양국 간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또 한·일 협력에 의해 테크노마트를 설립해 역내 기술교류를 주도하고, 기술훈련센터를 건립해 기능별 기술인력을 양성해 나간다면 역내 국가 간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경제공동체 건설이 촉진될 것이다.

세계 경제는 결국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에서의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WTO 체제가 완전히 뿌리 내리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으로, 세계 경제의 전환기에서 한국 경제가 좌초하지 않고 안정적 발전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이 같은 과도기적 대응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leejy@hufs.ac.kr